

본문 : 요한복음 11 장 38-44 절

제목 :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1.

올 겨울은 유난히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3 월 중순에도 기온은 섭씨로 영하 22 도까지 떨어지고 30 센티미터 이상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겨울이 혹독할수록 봄을 맞는 기쁨은 큰 법이지요. 올해 봄은 그 어느 해 봄보다 기다려지고 반갑습니다. 부활절이 한 겨울을 지난 봄의 초입(시작)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말은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말이었습니다.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이 있기에 부활의 기쁨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순절을 보내셨다면 부활을 맞는 기쁨은 남다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 매우 뜻깊은 절기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부활절이 되면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Christ risen).”,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He is risen indeed).” 우리 함께 앞뒤양옆의 교우들과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눕시다.

제가 어린 시절 부활절 새벽 기도를 어머니 손 잡고 함께 갔던 기억이 납니다. 부활절 새벽기도 장소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뒷 동산의 무덤가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새벽 4 시 기도시간을 맞춰 여자 성도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무덤가를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부활절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아침, 무덤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컸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은 주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지배를 받으심을 보여주었기에 빈 무덤이야말로 부활의 상징물이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빈 무덤은 아니었지만 무덤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어두운 무덤가 예배처에서 무덤이 갈라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본격적인 수난을 앞두고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동편 비탈길로 1.7 마일 정도 내려가면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고 심신이 피곤해질 때마다 이 동네에서 안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환영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반겨주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 가족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3 절), 친구(11 절)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어 장사된지 이미 4 일째였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시체는 천으로 두텁게 둘러 있었죠. 슬피 우는 누이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십니다(ego eimi - 나는 ~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25-26 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좀처럼 보여주시지 않던 눈물까지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동굴로 된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죠. 그런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칩니다. 이 때 어두컴컴한 무덤에서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는 죽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고 하시며 그를 움아매고 있던 천을 풀어해치라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곧 이루게 될 죽음의 극복, 즉 부활이 상징적으로 선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곧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보여주는 것이었죠.

3.

부활이란 말의 원래 뜻은 '다시 일어나다'입니다. 헬라어 Anastasis 도 그렇고 라틴어에서 나온 Resurrection 도 그렇고 모두 다시 일어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서기, 즉 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나사로에게 나오라는 말은 필멸의 가치, 반드시 소멸될 가치에 둘러 싸여서 수족이 매인 채로 절대적 무기력 상태에 빠진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에 둘러싸여 무기력하게 무덤에 누워 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그는 직립보행자가 되어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주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을 둘러싼 천쫂가리들 때문에 그는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객체로 머물러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비쳐지는 나사로는 친구덕을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두어 죽음마저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나온 나사로를 친친 감고 있었고 그를 부자연스럽게 묶어 두고 있었던 수건과 베옷을 벗겨내도록 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 났다고 하지만, 그는 죽은 지 4 일이나 된 시체였기에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액체와 썩은 냄새가 그를 두르고 있던 수건과 베옷에 한 가득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은 고역을 치렀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기 원했기에 그런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친구 덕에 다시 생명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친구들 덕에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4.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친구였던 예수님과 그의 수의(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를 벗겨주었던 친구들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하게 주저 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직립하여 자유롭게 걷는 것이라면, 그 부활을 살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살도록 도와주는 이들을 본문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험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독특한 자의식을 표현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의식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기 위해 나사로를 살려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내신 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보내신 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 부탁하시자 보내신 분의 뜻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보내신 분이 그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신앙이야 말로 부활을 살아가는 믿음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보내신 분의 뜻이라 이해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이국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가기 원했던 중국에서 4년 만에 추방이 되어, 계획에도 없던 미국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인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죽음의 기운 가운데 주저 앉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직립 보행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로처럼 자기 동굴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 싸고 있는 절망과 좌절의 베옷과 수건을 혼자 힘으로 벗어낼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 <죄와 벌>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려 주저 앉아 버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라스콜니코프라는 젊은이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는 평범한 인간과 비범한 인간이 따로 있다 생각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비범한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그의 살인이 합리화 될 수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이 비범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파는 탐욕적이고 이 사회에 쓸모가 없는 존재이기에 그를 살해함으로 자신이 비범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살해 현장에 있었던 노파의 조카마저 죽이게 됩니다. 소설은 살인 이후 그가 겪게 되는 이성과 양심의 충돌, 그리고 그를 짓누르는 깊은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한 그의 내면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런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고 장황하여 조금 지루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백미는 소설 마지막의 에필로그에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 받습니다. 그의 시베리아 유형에 쏘냐라는 생계형 매춘부가 동행을 합니다. 시베리아 유형을 가고서도 라스콜니코프는 그의 사상이 틀렸다고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 듯 합니다. 다른 죄수와 어울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립되어 마치 무덤에 갇혀 지내는 듯한 삶을 계속합니다. 쏘냐는 그런 그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며 그를 끝까지 돌보고자 합니다. 마침 병에든 주인공은 서서히 쏘냐의 사랑에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붙들고 있던 신념과 사상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란 바로 쏘냐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라스콜니코프에게 복음서의 한 이야기를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를 쏘냐가 읽어주자 라스콜니 코프는 그녀 앞에 울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죽었던 자, 갇힌 자, 묶였던 자의 재기(再起, resurrection)이며 대전환을 상징하는 성서의 대표적 사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지은이는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삶의 의미를 잃고 쓰러진 청년 라스콜니코프의 삶의 부활과 대전환을 보여주려 합니다. 죄에 대한 죄값, 즉 죄의 벌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로마서 6 장 23 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청년 라스콜니코프의 부활의 모형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나사로의 부활을 왜 매춘부였던 소냐가 읽었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소냐를 예수님의 대행자(agent)로 본 듯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에서, 예수님은 명령만 하셨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난 나사로를 칭칭 두르고 있던 천을 벗겨주었던 대행자가 있었죠. 소냐는 예수님의 대행자로 라스콜니코프의 부활사건을 도왔던 것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세상과 단절된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굼아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를 죄의 결과인 혼돈과 광기 그리고 정신적인 방황과 분열이 움아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를 예수님 대신에 무장해제 시키는 역할을 소냐가 감당합니다. 소냐는 혼자 씨름하고 있던 죄의 문제를 예기치 않은 고해성사를 통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해주었고, 라스콜니코프가 타인을 향해 품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올가미를 풀어 해칠 수 있게 도왔던 것이지요.

6.

비록 가족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매춘이었다지만 소냐는 매춘부였고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음서를 통해 죄의 용서를 깨달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된 경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녀가 죄의 문제를 씨름해 보았기에 그 죄의 강력한 핵주먹에 나가 떨어진 라스콜니코프를 누구보다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소냐는 용납받은 치유자(a forgotten healer) 또는 상처받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로 라스콜니코프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길라잡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영향력 아래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용서와 십자가 사랑으로 새 삶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용납받은 치유자로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참 사랑과 용납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이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풀어 놓아 다니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보내신 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리고 보내신 분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어 다른 이들을 치유하신다는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덕에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부활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